

위험 관리 용어 해설

위험 (Risk, Peril, Hazard)

일반적으로 Risk, Peril, Hazard 모두 '위험'이란 용어로 번역 사용하고 있지만, 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

Risk (the chance of loss)

Risk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정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으로는 '불확실성'(uncertainty)과 '손해발생의 가능성'(chance of loss)이라는 개념이다. 즉, Risk란 손해(또는 사고)발생의 가능성 내지 불확실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보험의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것들 즉, 사람·자동차·항공기·건물·기타 물품 등에는 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위험이 언제·어떻게·얼마만한 크기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으로, 보험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부여하려는 사회적 장치인 것이다.

참고로 보험사전(한국보험학회 발간)에서는 보험용어로서의 Risk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우연한 사고발생 가능성으로서의 위험(화재, 충돌, 추락, 도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높은 위험(개연성, 확률)
-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구체적인 제사정에서의 위험(화재보험의 예를 들면 건물의 소재지, 주위상황, 용도, 건축재료, 면적, 층계, 개인

용 소방장구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이나 건물사용자, 소유자의 화기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같은 주관적 사정이 있다.)

-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구체적인 제사정의 종합상태에서의 위험(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사정과 위험상태를 구별하지 않는다.)
- 우연한 사고로서의 위험(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경우)
- 우연한 사고의 불이익의 결과를 부담해야 할 필연성 책임에서의 위험(위험의 전가나 인수 등의 경우)
- 우연한 사고의 불이익한 결과를 부담하여야 할 필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태에서의 위험
- 우연한 사고발생의 객체로서의 위험

Peril (the cause of loss)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사고의 결과 소유의 상실, 기대수익의 상실, 금전의 지출, 책임부담 등의 형태로 손해를 발생케하는 것이다. Risk라는 추상적인 위험과는 달리 구체적인 부보대상이 되는 위험들 즉,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폭설, 화산폭발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충돌, 도난, 질병, 추락, 침몰, 전쟁, 파업 등의 위험을 말한다.

Hazard

사고(또는 손해)의 빈도(frequency)나 강도(severity)를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나 조건, 상황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결빙된 도로 등이 그 예이다. Hazard는 보험에 있어서 위험측정(underwriting judgement)의

요소 및 척도와 관련된다.

이상의 위험구분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켜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가 얼어붙은 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다 미끄러져 마주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Risk는 실제 사고와는 관계없이 (교통)사고의 가능성,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Peril은 '충돌사고' 그 자체를 의미하며, Hazard는 '미숙한 운전자', '얼어붙은 도로', '과속주행' 등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나 조건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기업경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을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유효한 수단이 보험이 되겠지만 그 밖에 자가보험, 재해의 예방, 재해발생의 경우의 조치도 위험관리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기업에는 리스크 매니저라는 전담자가 있는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주는 사외의 보험고문같은 전문가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또 기업을 둘러싼 공급자, 소비자, 종업원, 정부 등의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면 기업에 부딪치는 위험도 복잡다양해지며, 완전히 발생할 저지할 수 없는 위험은 합리적으로 부보해 두는 것만이 미국에서의 기업경영상 중요한 분야로 되고 있다. ☹